

## 2005년 LBS 상반기 워크숍 개최



협회 내 LBS산업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부터 타워호텔에서 '2005년 LBS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설명회 ▲ LBS 기술 및 산업동향 ▲ 국내외 LBS표준화 동향 등 3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정부, 학계, 이통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앞두고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신고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갖춰야 할 주요사항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정통부는 위치정보법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10월에 최종적으로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내달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LBS 기술 현황 및 전망'과 '서비스 사업자(SKT,LGT,한국위치정보)의 2005년 LBS 사업 추진 전략', '국내 LBS 표준화 동향' 및 'OMA(Open Mobile Alliance)표준화 동향 및 세부 기술규격' 등에 대한 발표가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협회는 이달 중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지방 체신청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문 의 : 정보화기획팀 (02-580-0532)

## 보안상담센터 공동운영 등 업무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협회 정보화기획팀은 바이러스 및 해킹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처하고 국민의 보안의식 향상에 부응코자 협회와 보안컨설팅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보안상담센터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9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보안상담센터 운영 등 업무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안철수 연구소와 20여개 보안 업체가 회의에 참석하여 보안상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세부 업무협



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씨큐브의 박영철 이사는 “컨설팅 업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어 컨설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성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안상담센터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보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문 의 : 정보화기획팀 (02-580-0533~4)

## IT분야 정부·공공조달 전략 세미나 개최

협회는 IT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IT분야 정부·공공조달 전략 세미나'를 지난 5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연구원 김도훈 실장이 국제 정부조달제도(GPA)의 전략 및 대응방안과 관련, 각 회원국 정보조달제도와 GPA 협정문 개정안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이어 드림에이드(DreamAid) 로리 정(Lori Jung) 대표는 미 연방 조달제도부문 진출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로리 정 대표는 연방조달제도의 규모, 품목, 특징, 최근 동향과 연방조달입찰 과정, 자격, 한국기업 진출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모영주 중국 지사장은 중국의 IT관련 부문의 입찰전략을 소개했다. 모 지사장은 정부조달 자격, 절차, 계약, 참여시 고려사항, 문제점 분석에 대해 최근 IT조달사업 및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대정보기술 박종현 부장은 해외 정부 공공부문 진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전략을 집중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장은 한국기업들의 참여방법, 관련행사, 진출시 고려사항, 성공사례, 실패사례, 한국기업들의 장단점 등을 4가지 주제발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번 전략 세미나는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외 정부·공공조달 부문이라는 무한한 시장 개척의 길을 열어주고, 또한 수차례 해외로 눈을 돌렸다가 높은 규제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Q&A를 통한 직접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 문 의 : IT통계센터(02-3486-2220)

## 'DIGITAL BUSINESS MODELS' 서울대학교 객수일 교수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협회내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은 지난 5월 17일 조찬회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객수일 교수가 'DIGITAL BUSINESS MODELS'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객교수는 강연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며, 기업의 모습과 경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객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이 경쟁하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 교수는 강연 중간 중간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여러 가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설명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미래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영전략의 연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문 의 : 한국 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



## 'DMB산업의 전망과 현안과제' TUM미디어 서영길 대표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IT리더스포럼 6월 조찬회가 지난 6월 29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6월 행사는, TUM미디어 서영길 대표가 'DMB산업의 전망과 현안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강연했다.

서대표는 강연에서 위성DMB 서비스와 지상파DMB에 대해 비교 설명하면서,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단순경쟁 관계라기 보다는 목표시장과 서비스 성격이 서로 다른 보완관계"라며 "지상파DMB가 빨리 정착되는 것이 위성DMB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대표는 "프랑스가 위성DMB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일은 월드컵 개최시 지상파DMB 시험 방송을 계획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이동형 방송서비스가 세계 시장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보류 방침에 대해 "시청자의 볼 권리와 매체간 공정

경쟁을 침해하고 위성DMB사업자의 조기안착을 저해한다”고 설파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서비스 성공 전략으로 휴대폰 겸용 단말기 10여종, 휴대전용 단말기 1~2종, 차량용 단말기 5~6종을 추가해 단말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위성DMB전용 콘텐츠와 오디오채널, 지상파 인기 콘텐츠를 공급하고 메이저리그 방송, EBS채널 무료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대다수 회원들은 재난 방송의 경우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재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

##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설명회 개최

협회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보호수단 정책에 부응하여 지난 6월 10일 과총화관에서 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보호수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가 지난 5월 정부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인터넷사업자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협회 회원사 및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설명회 발표 자료와 함께 당일 발표하지 못한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을 포함하여 재차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주민번호 해수값(160비트), 연계ID관리기관에 등록된 ID와 개별 웹사이트 ID를 연계하는 매개정보 등 8개 솔루션 사업자의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정보(주민번호 보호수단)가 선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용되었던 실정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도입 정책을 마련,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안전성이 확보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도 시연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 9월 공청회에서 해당 보호수단 선택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의사 결정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로서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련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고객지원팀(02-580-0575)

## 서울대 IT산업정책과정 지원

협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에서 열린 'IT산업 정책과정' 강의를 회원사에 한해 청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은 3월 8일 레이콤 양덕준 대표의 IT Globalization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SKT, KT, KTF, 삼성전자, TU Media,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굴지의 업체 임원들과 오명 부총리/과학기술부 장관, 이성욱 정보통신부 실장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WCDMA, Wibro, 위성 DMB 등 IT산업과 정책 전 분야에 걸쳐 강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 문의 : 대외협력팀(02-580-0632)



## 러시아 · 싱가포르 최대 IT전시회 참가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러시아(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SVIAZ/Expo-Comm MOSCOW 2005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러시아내 최대 IT전시회이며, 협회는 국내 중소기업 9개사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모

모웬(Motion G), 고려오트론(광통신), 벨코정보통신(유·무선 인터넷전화기), 코어세스 등 9개 중소기업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약 1,000만불의 수출상당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인도 유무선통신사업자인 BSNL이 이트로닉스의 중계기, NRD테크의 무선백분시스템 도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신지소프트는 GVM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인에이블러 상담 요청이 많았다.

협회는 또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Communic Asia 2005'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동남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로 올해 16회째 열리고 있으며, 51개국에서 1486참가업체가 참가하는 한편 참가 바이어도 35,050명(해외 바이어:15,363명)이 참가, 지난 해에 비해 5% 늘어난 등 주목받고 있는 전시회이다. 협회는 아이크래프트, 하이게인안테나 등 총 16개 업체가 한국관을 구성, 참가하여 상담액 1,915만불, 계약액 260만불(총 5건 체결)의 성과를 올렸다.

○ 문의 : 해외사업팀(02-580-0583)